

## 하나님 마음으로 공동체 섬기기

빌립보서 2장 5-8절.

5.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풀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6.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낫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주님의 마음에서. . .

오늘은 우리가 공동체를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지난 해에도 동일하게 공동체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기로 결심하다’라는 제목이었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공동체’에를 이룬다는 것은 기 공동체를 이루는 ‘독특성’이 있을 때입니다.

사도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공동체에게 편지를 할 때의 심정입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는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교회에 이렇게 편지 합니다. 본문 5절.

5.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풀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당연히 이런 질문을 가져야 될 듯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인가요? 5-7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은 ‘겸손’ ‘섬김’ ‘복종’이라는 단어들입니다.

우리가 ‘주’라 고백하는 예수님께서 이 땅위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마음들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이런 예화가 있더군요.

아프리카 어느 부족에서는 부족민 중 한 사람이 몸이 아프게되면 부족의 치료사가 찾아가 맨 먼저 묻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의사들처럼 ‘어디가 아픈가?’가 아니라 다음 네 가지를 묻는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노래한 것이 언제인가?

마지막으로 춤춘 것이 언제인가?

마지막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한 것이 언제인가?

마지막으로 고요히 앉아 있었던 것이 언제인가?”

이 네 가지를 한 일이 오래 된 사람들이 아프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처방은 당연히 이 네 가지를 행하는 것입니다. 아주 지혜로운 부족입니다. 아마도 부족민들은 이 처방을 받고 모두가 건강하게 한 평생을 살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크리스천 공동체에도 이런 요소들이 필요합니다. 성경에도 ‘춤추며 소고치며 찬양하라’ (시 150)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소그룹을 통해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또 새벽예배와 묵상의 시간들을 통해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것만으로 크리스천의 공동체를 다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아마 빌립보의 교회 뿐 아니라, 대부분의 기독교 공동체에 이 네 가지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요소들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없으면 아무 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빌립보서 2장 1-4절을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려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가만히 말씀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빌립보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 사랑의 무슨 위로 성령의 무슨 교제 긍휼이나 자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나뉘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로가 좋은 일을 하려고 다툼이 있었던 듯합니다. 이렇게 좋은 일 하는 것이 사도바울의 눈에는 ‘다툼이나 허영’으로 보였던 것이죠.

왜냐하면 ‘겸손하지 못한 마음으로 자신을 남 보다 낫게 여겨’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또 선교지를 다니면서 경험하는 가장 보편적인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열심히 사역하는 공동체에는 ‘다툼도 열심히’ 일어난다는 것이죠.

너무나 충성스럽게 일하다보니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경향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공동체에서는 열정도 다툼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열심히 일하는 것이 잘못된 것도 아니요,

다툼이 없다는 것만으로 선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사도바울의 표현을 빌자면, ‘기쁨이 충만한 공동체’를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이죠.

열심히 섬기고 일하는 것 때문에 다툼이나 허영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열심 가운데 한 마음을 품어 행복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바울은 명확하게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던 것은 아닐까요?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에서 디트리히 본 회퍼는 ‘성도들의 공동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마도 사도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공동체를 가장 근접하게 설명하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 1.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분의 말씀을 듣는 데서 시작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형제에 대한 사랑도 형제의 말에 귀를 기울여 듣는 것을 배우는데서 시작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누군가 우리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고맙지 않던가요? 제일 많이 받는 유혹은 ‘말을 많이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 사람을 생각한다고 하면서 우리 자신의 경험과 실력을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이 자신에게 귀를 기울여 들어줄 사람을 찾지만, 그리스도인 가운데서도 들을 귀를 가진 사람을 찾기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들어야 할 때도 입을 열어 말하려고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형제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은, 머지않아 하나님께도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도 항상 말만 하려고 들 것입니다.

여기서 영적인 죽음이 시작되며, 결국 남는 것은 영적인 수다뿐입니다.

결국 ‘영적수다’는 자신이 삶의 중심에 서 있다는 증거가 아닐까요?

누군가를 위해 말을 들어줄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말씀을 들을 시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세워놓은 계획이 있고, 할 말이 많으니 말입니다.

본 회퍼의 말 중에 가장 깊이 와 닿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목회자에게는 말씀을 전하는 사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명도 주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누군가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라고 행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하고, 우리가 형제와 자매를 섬기기 위해서는 그들의 말을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2. 공동체의 섬김은 기꺼이 다른 사람을 돋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일은 중요한 일이 아닌 ‘하찮은 일’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 말에는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 실상은 ‘하찮은 일’이 아닌, 우리들 스스로가 ‘하찮게 생각하는 일’로 인해 섬김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스스로는 여기에서 벗어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너무 중요해서 하찮은 섬김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삶이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을 외면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습니다.

공동체에 대한 물음이죠. 누가복음 10장 25-27절.

어떤 유행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행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한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여기에 등장하는 ‘이웃’이라는 말을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사용하는 언어로 바꾼다면, ‘공동체’라는 말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영생’에 대한 물음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대답한 것인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희 공동체를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레위인과 제사장이 강도만난 자를 길에서 보고는 그냥 지나쳐 버리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이들의 직업상 성경을 읽거나, 성전에 관련된 일을 하기에 바빠서 강도만난 자를 그냥 지나쳐 버렸던 것 같습니다.

아주 중요한 일인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서 우리 삶에 분명하게 보이는 ‘십자가의 표식’을 그냥 지나쳐 버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신앙의 문제는 “하나님은 너무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대상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오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과 공동체를 사랑하는 일을 이분법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실상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공동체에서 실현되는 것인데 말입니다.

본 회퍼의 글을 조금 인용해 보겠습니다.

“우리 시간을 자기 감독 하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채우시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겸손을 배우는 학교에 속한 것입니다. 수도원에서 수도원장에게 복종을 서약한 수도사는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스스로 포기합니다.”

지난 해, 조금은 한가하게 이용규 선교사님과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선교사로 있으면서 젊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데, 놀라운 영적 부흥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인도네시아에는 찬양 집회에 10만 15만이 모여 예배를 드리고, 모슬렘들이 찬양예배에 참석해 회심하고 성령세례를 받는 일들이 놀랍게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한 인도네시아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너희 나라는 K-Pop을 자랑하는데, 우리는 너희에게 찬양집회를 자랑한다!”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국교회에 대한 위기를 많이 걱정했습니다.

소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목자교회 분당우리교회와 만나교회의 목사님들이 세상과 오염되지 않은 곳에서 교인들과 교회만 깨끗해지는 것 같아서 걱정이라고 말입니다.

모든 한국 교회 교단마다 깨끗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목회만 하는 사람들이 지저 분한 곳에 밭을 담그려 하지 않자 정치꾼들에게 모든 것을 내주고 말았다고 말입니다.

정치과 연예 방송과 같은 영역이 깨끗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싸우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다 손을 떼니, 깨끗하지 않은 사람들이 다 장악해 버렸다고 말입니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열중한 나머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아끼시는 세상에 대하여 너무 무관심한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바빠서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는 일들에 너무 소홀한 것은 아닌지.

### 3. 공동체를 돋는 일은 집을 서로 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집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 참 흥미로운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된 사람들은 ‘집’입니다.

누군가 전혀 우리들에게 부담스럽지 않거나 집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면, 관계가 없는 이방인이 아닐까요?

우리가 누군가를 공동체의 일원으로 ‘이웃’으로 생각한다면 분명히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무거운 십자가의 짐을 지신 것이 아닐까요?

이사야 53장 4-5절 말씀을 보세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짓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짜릿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 **크리스천 공동체의 아이덴티티!**

디트리히 본 회퍼의 [성도의 공동생활]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다음 두 가지를 명확히 하는 것에 사활이 걸렸다고 말합니다.

“첫째, 그리스도인의 형제 공동체의 이상이 아니라, 거룩한 현실이라는 사실입니다.

둘째, 그리스도인의 형제 공동체는 인간적인 현실이 아니라 영적 현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이상적 기독교 공동체’ 실현을 시도했던 사람들이 깨어지는 과정을 분명하게 목격합니다. 어떤 공동체도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을 표방하며 모였지만, 끝까지 그 공동체를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디트리히 본회퍼는 이러한 기독교 이상의 깨어짐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쁜 꿈도 아니고, 이상적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를 이루고자 하는 이상의 깨어짐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이런 답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개인들 뿐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불완전함을 느끼며, 스스로에게 찾아오는 불쾌감과 실망 앞에서 우리는 본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철저하게 깨어짐을 경험해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게 되지 않을까?

우리의 공동체에는 이상적이고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자비하심이 필요한 존재이듯이,

우리가 함께 하는 형제자매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사랑 아래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많은 것처럼,

우리의 형제자매들에게서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참 많은 감사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때, 서로 실망하지 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현실입니다. 환영의 안개가 걷히는 곳에서 거룩한 현실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우리의 이상이 실현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영적 현실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에서 우리가 구별해야 하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인간적 사랑과 영적인 사랑의 차이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겠다고 마음먹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이러한 사랑 역시 결심과 사랑이 필요한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교회에서 생활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열심히 노력’ 하다가 스스로 지치거나 실망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특히 힘들어 하는 이유는, “나는 이렇게 선한 마음으로 행하고 희생하는데, 자신을 따라주지 못하는가? 왜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고 오해하는가?”라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행하는 일이라 해도, 상대방이 나의 이상을 이해하고 따라와 줘야 한다는 것이 무척 이기적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사랑인 것은 분명한데, 너무나 이기적이고 교만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사랑하는데, 원수가 생겨납니다.

그러면 영적인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리하여 영적인 사랑은 형제와 함께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기보다는 그리스도와 함께 형제에 대해 말하게 됩니다.” (본 회퍼의 [성도의 공동생활] 중에서)

본회퍼의 말에 의하면 “그리스도께서 나와 타인 사이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공동체에서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기준에서 우리의 사사로운 욕심 보다는 그리스도의 마음에 따르기 시작할 때, ‘원수’조차도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됩니다.

인간적인 공동체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영적인 것은 ‘위’로부터 오지만, 인간적인 사랑은 자신의 마음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공동체에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때,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 때, 우리는 상대방을 지배하거나 강요하려는 욕심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 것입니다.  
‘타인’이 나의 생각에서부터 자유로워질 때, 비로소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요?

이 때 시편 133편 1절의 말씀이 확실하게 마음에 와 닿을 수 있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공동체를 세우는 습관에 대한 성경적 고찰’ 팀 켈러의 [복음과 삶] 중에서**

### 습관 1 - 서로 강점과 능력과 재능을 긍정하라

- \* 로마서 12장 10절 - 서로 존경하라.
- \* 야고보서 5장 9절 - 서로 원망하지 말라
- \* 로마서 12장 3-8절 - 서로의 은사를 존중하라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이 한 일을 칭찬하고 축하하는데 빠른 사람들이어야 한다. 칭송하고, 감사하고, 지지하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어야 한다.

(다음의 것들을 의도적으로 행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 \* 열매: 사람들이 어디에서 성장하고 있으며 발전하고 있는지
- \* 재능: 사람들이 다른 이들을 유익하게 할 어떤 재능과 은사들을 가지고 있는지
- \* 헌신: 그들이 옳은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하고 있는가? 그들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 습관 2 -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사람들의 동등한 중요성을 인정하라

- \* 로마서 15장 7절 -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 \* 고린도전서 12장 25절 -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 \* 베드로전서 5장 5절 -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 \* 야고보서 2장 1절 -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것은 세상적인 신분 사다리나 위계서열을 대단하게 생각하는 것을 거부하는 전반적인 의식 구조이다.

(아나니아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박해자였던 사울을 받아들였던 일을 기억하라!)

본질적으로 아나니아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당신이 과거에 누구였고 무엇을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형제이다.”

### 습관 3- 가시적인 애정을 통해 서로를 인정하라

- \* 로마서 16장 16절 -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 \* 야고보서 1장 19절 -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 \* 에베소서 4장 32절 -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라.
- \* 데살로니가전서 3장 12절 -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라

존 스토프는 이렇게 썼다.

“하나님은 그분의 교회가 상호 지지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의도하신다.

‘서로 위로하라’ (살전 4:18);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9살정 5:11). 여기에서 ‘서로’ 또는 ‘피차’는 그리스도인 돌봄의 상호성을 강조한다.

우리는 특별한 전문적 위로자나 상담자들에게 이것을 떠넘기지 않는다. 물론 이는 채워져야 할 중요한 역할들이다. 그러나 지지하고, 돌보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의 모든 지체들에게 속한 사역들이다.

디트리히 본회퍼는 [성도의 공동생활]에서 이렇게 썼다.

“한 사람이 교제 가운데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첫 번째 섬김은 그들에게 경청하는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으로 시작하듯이.

[서로에] 대한 사랑은 그들에게 귀 기울이기를 배우는 것으로 시작한다.

듣는 것은 말하는 것보다 더 큰 섬김이다. 어떤 종류의 듣기는 조급하고 무관심한 듣기가 있다. 그것은 말할 기회를 기다리는 것일 뿐이다. 다른 사람들 제거해 버리는 것이다.“

#### 습관 4 - 서로의 공간 물건, 시간을 공유하라

이는 사람의 신체적, 물질적 세계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다. 마치 가족 멤버들이 하듯이 말이다.

\* 로마서 12장 10절 - 형제 사랑에 서로 헌신하라

\* 베드로전서 4장 9절 - 서로 대접하라

\* 갈라디아서 6장 10절 - 기회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하라.

#### 습관 5. 서로의 필요와 문제를 공유하라

자원과 재산을 공유하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예민해지는 한 가지 방법이다. 또 다른 방법은 우리의 근심과 약함을 공유하는 것이다.

그들에게 우리를 사랑하고 지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상처 받은 사람들을 찾아내어 그들이 필요한 지지를 제공해야 한다.

\* 갈라디아서 6장 2절 - 짐을 서로지라.

(너무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누군가를 당신이 돋는다고 생각해 보라. 짐을 지려면, 당신은 먼저 짐 진 사람 가까이 다가서야 한다. 거의 그 사람 처지에 서는 것이다. 다음으로 당신은 반드시 당신의 힘을 사용해서 짐을 받쳐야 한다. 그래서 그 무게가 서로에게 분산되게 해야 한다. 그러면 원래 짐을 지던 사람에게도 짐이 가벼워진다.

“짐을 진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그 아래로 와서 그 무게와 책임과 고통이 당신에게도 실리게 하는 것이다.)

\*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1절 - 피차 권면하라.

(권면하라는 헬라어의 의미는 여정 가운데 아주 가까이 서서 서로를 응원하고 지지하라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약한 점을 도우려고 하면서 정작 자신의 약한 점을 숨기며 도움 받기를 거부하는 것은 일종의 위선이다. 다른 사람에게 비이기적으로 도움을 주려면 복음으로 변화된 마음이 필요하다.

또한 다른 사람으로부터 수치심 없이 도움을 받아들이는 것도 복음으로 변화된 마음이 필요하다.

## 습관 6 - 서로 신앙과 생각과 영성을 공유하라

우리는 단순히 개인적으로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대신에, 우리는 함께 성경을 읽고 토론하고 공부하여 더 깊은 마음의 일치에 이른다. 어떻게 우리가 사는 시대와 장소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인지 합의에 도달한다.

\* 골로새서 3장 16절 -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라.

(여기에서 가르치고 권면하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갖는 의미를 함께 이해하기 위해 함께 일하라는 것이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방식이 만들어 질 때까지 성경을 읽고, 토론하고, 서로 가르치고, 도전하고, 합당한 논쟁을 하도록 지시를 받은 것이다.)

\* 에베소서 5장 19절 -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라

\* 로마서 12장 16절 -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

### 디트리히 본 희퍼의 [성도의 공동생활]

“그리스도인 공동체에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행해야 할 두 번째 섬김은 기꺼이 다른 사람을 돋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무엇보다 그리 중요하지 않아 보이는 사소하고 외적인 일을 겸손하고 도와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가로막으실 때를 대비하여 준비된 자세로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길에 그들의 요구와 요청을 들고 찾아오는 사람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길과 계획을 반복해서 가로막아 서십니다. 아니, 날마다 우리의 길과 계획을 지지하십니다. 우리는 강도 만난 자를 지나쳐 버렸던 제사장처럼, 우리가 하고 있는 중요한 일에 몰두한 나머지, 그들을 지나쳐 버릴 수 있습니다. 어쩌면 성경을 읽느라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 습관 7. 용서와 화해를 통해 서로 섬기라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서로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용서 및 관계 회복을 추구함에 있어서 결코 지쳐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이 먼저 손을 뻗어서 부서진 관계를 고치길 원하신다. 그리스도인은 화해의 과정을 시작하는 책임이 있다.

\* 에베소서 4장 2절 -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여기서 ‘용납’은 작은 짜증거리들에 대해 인내하고 관용하라는 것)

\* 골로새서 3장 13절 -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라

\* 갈라디아서 5장 26절 -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노엽게 한다’는 것은 멸시하고, 내려다보고 업신여기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당신보다 못하기 때문이다./ ‘투기한다’는 것은 사람에게 멸등감을 느끼며 분노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당신보다 뛰어나기 때문이다.)

- \* 야고보서 4장 11절 - 서로 비방하지 말라
- \* 마태복음 5장 23-24, 18장 15절 - 깨어진 관계를 서로 재건하라

### 습관 8. 우리의 이익이 아니라 서로의 이익을 섬기라

이것은 공동체에서 당신의 이익보다 다른 사람들의 필요와 이익을 앞세우는 사고방식이다. 전형적인 섬김의 마음이다. 당신 주변의 필요를 의도적으로 살펴본다는 의미다. 우리는 사람들의 필요와 관계 형성을 위하여 공동체를 형성하는 작업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는 일이 가능하다.

- \* 히브리서 10장 24절 -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 \* 로마서 15장 1-2절 -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라
  - \* 갈라디아서 5장 13절 -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 (바울은 우리가 서로에게 사랑을 빛처럼 갚아야 한다고 말한다. 계약제 하인들이 부채를 지면 빛을 다 갚기까지 종이 된다. . . 그래서 우리는 계약제 하인과 같다. 그리스도가 그러신 것처럼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의 빛을 지고 있다.)

### 팀 켈러의 [복음과 삶]

공동체와 신학: “무엇이 기독교 공동체인가?”

1. 하나님의 백성 - 그분의 복음을 통해 믿음으로 창조된 백성  
기독교 공동체는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로서 복음, 곧 은혜의 메시지에 대한 공통 경험을 한 사람들로 구성된다. 출애굽기 6장 6-7절.  
내가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너희를 속양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 되리니

먼저 하나님은 그들을 노예에서 구원하신다. 그 결과로,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만 한다. 그들이 먼저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만 한다. 그들이 먼저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그들의 공로의 결과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다.

그들은 오직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자신을 헌신하였다. 그리하여 구별된 ‘백성’이 된다. 이스라엘을 ‘한 백성’ - 한 몸, 한 공동체-이 되게 한 것은 지난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경험한 것이다.

이제 우리도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벧전 2:9) 우리가 복음을 들었고 믿었고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새로운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형제들’이다.

## 2. 그리스도의 몸 - 그분의 살에 참여하는 몸의 지체들

기독교 공동체는 의도적으로 삶을 함께하는 사람들로 구성된다.

이 측면의 가장 강력한 성격적 비유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가정’ ‘권속’ ‘집’ ‘형제’ (갈 6:10; 앱 2:19; 베전 4:17; 롬 12:10)이다.

가족은 모든 삶을 함께 한다. 함께 먹고, 생활하고, 일한다.

## 3. 성령의 교제 - 그분의 미래의 모델이 되는 존재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대안적 사회가 되어 삶의 모든 면에서 구별된 삶의 방법들을 보여준다.

교회를 이렇게 보는 강력한 비유 중에 하나는 ‘언덕 위의 도시’이다. (마 5:14) 교회의 가시적 행동들은 밝게 빛나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 준다.

현재 교회는 미래의 그리스도 아래에서 사회가 어떤 모습일지를 보여준다. 우리는 복음이 일상생활에 일으키는 변혁을 세상에 보여 주어야 한다.